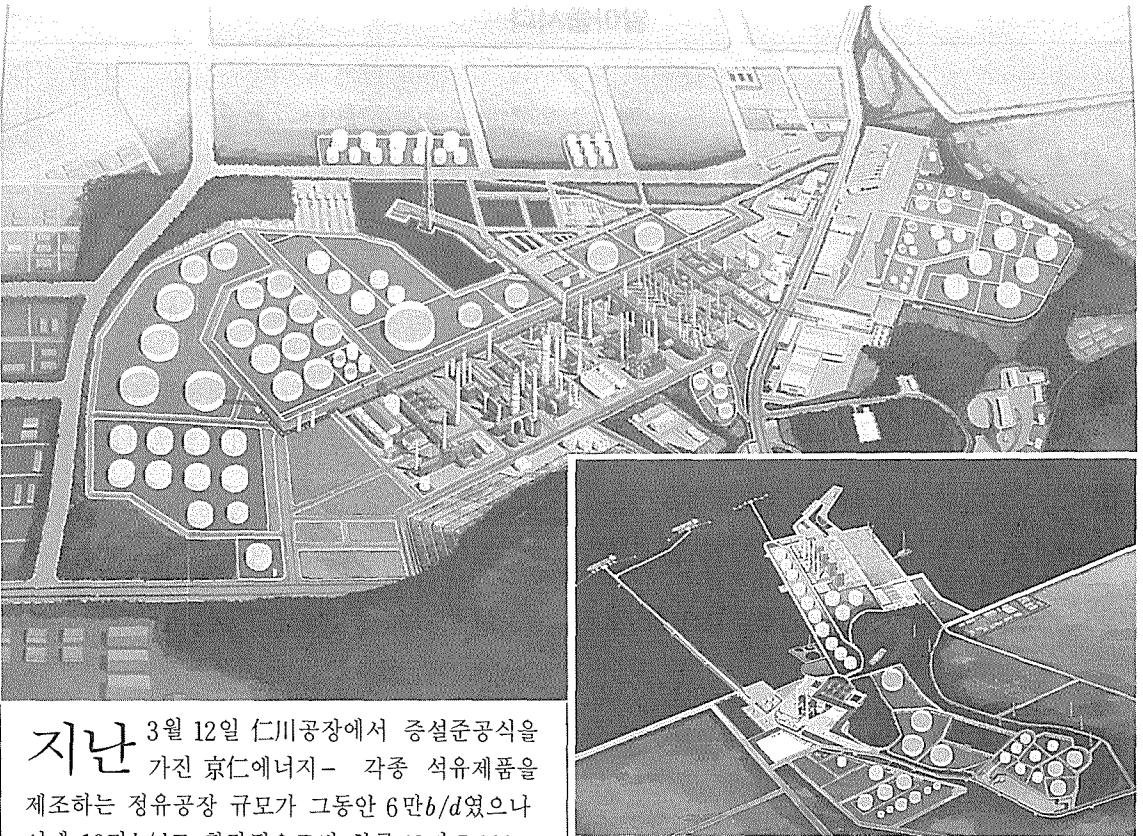


「제2 창업」 맞는 京仁에너지

— 정유공장 증설과 BTX 생산시설 준공 —

金 鍾 七
〈석유협회 홍보과장〉



지난 3월 12일 仁川공장에서 증설준공식을 가진 京仁에너지- 각종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정유공장 규모가 그동안 6만b/d였으나 이제 16만b/d로 확장됨으로써 하루 12만 7,200드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석유화학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방향족(BTX) 공장도 완공함으로써 21세기의 초일류기업을 지향한 종합에너지 회사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京仁의 힘찬 발걸음과 새로운 면모를 조명해본다.

□ 정유사업

이번에 확장된 정유설비는 ▲日産10만배럴의 원유정제시설 ▲日産3만배럴의 脫黃시설 ▲日産 2.5만배럴의 휘발유제조시설등이다.

정제용량을 10만b/d나 늘린 것은 앞으로 수년간의 공급량신장세를 감안한 것으로서 현재도 수요증

가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의 석유소비 증가율이 최근 3~4년간 19%를 상회할 정도로 높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은 내수의 36%나 차지하기 때문에 경인지역·수도권의 공급량이 많은 京仁에너지로서는 부담율이 커지는 셈이다. 작년 1991년도 총매출이 25%나 증가 7,648억원에 달한 것을 보면 (이중 전력과 운할유부문이 미미함을 생각할 때) 석유공급 증가추세를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급격한 차량보급에 따라 휘발유 제조시설을 별도추가하였는 바, 중전것과 합해 3만1천b/d에 달하였다. 이는 국내 톱규모 정유회사의 휘발유제조시설 규모와 비슷해진 것이다. 또한 원유정제시설 (상압증류탑)이 16만b/d에 달한 것은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 이외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저규모 15만b/d를 넘어섬으로써 수익개선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발 다가섰다는 뜻도 있다. 현재 국내 정유사의 정제용량을 허가기준으로 보면

▲유공 37만5천b/d ▲호남정유 38만b/d
 ▲경인에너지 16만b/d ▲쌍용정유 16만b/d
 ▲극동정유 6만b/d로서 합계 113만5천b/d이다.

한편 京仁에너지는 차량배기가스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良質의 저공해석유제품을 생산해내는 탈황 및 중질유분해시설도 시공중이다. 이번 증설준공식에 포함된 것은 3만b/d규모의 경질유 탈황시설과 單體疏黃회수시설이었다. 그러나 이 이외에, 3만b/d규모의 중질유분해시설과 역시 3만b/d짜리 탈황시설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들 2차정제시설이 완공되면 京仁에너지도 선진외국의 우수한 정유공장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設備高度化를 갖춘



고급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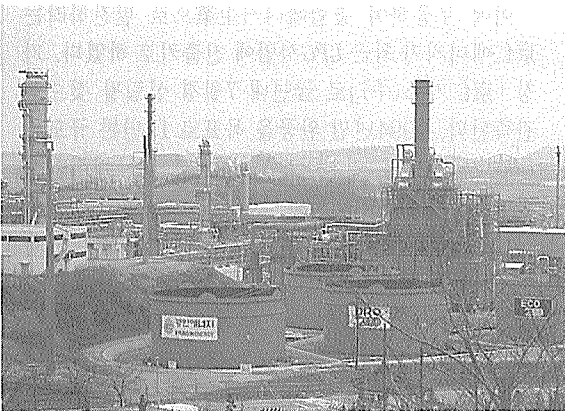
□석유화학사업

정유사업과 發電事業에 주력하던 京仁에너지가 미래의 도약을 위해 신규출범하는 사업으로 석유화학을 채택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정유회사들은 석유사업 수직계열화(탐사·개발·생산-정제-제품판매·수송)의 일관된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길을 지향하게 된다. 아울러 석유제품 제조공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석유화학공업도 운영하면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양대 사업을 겸하는 경영이 일반화 되고 있다.

금년에 시작하는 京仁의 석유화학사업은 우선 방향족제품(BTX)분야인데, 향후 BTX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관석유화학 사업으로 계속 확대하여 갈 계획이라 한다. 지난 3월에 준공한 신규생산시설은 ▲벤젠 年産 5만톤 ▲자일렌 年産 26만톤 규모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기초원료는 국내시장수요에 공급됨은 물론 상당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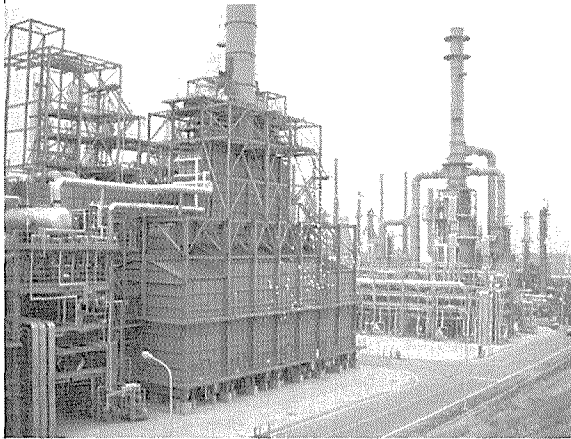
京仁에너지가 속한 한국화학그룹 산하에는 별도의 석유화학공업회사인 韓洋化學(株)이 있으므로 방향족부문에서 당장은 경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京仁에너지의 成樂正 부회장은 지난 3월 16일 그룹내 전문경영인으로서 최초로 同社 대표이사會長으로 승진, 앞으로 그룹의 석유화학 부문을 총괄하게 되었다. 成회장은 석유화학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설비투자지원 등을 그룹차



원에서 조정하리라 한다. 석유화학부문의 올해목표는 韓國火藥그룹 전체매출의 절반 가까운 2조1천억원. 신규 BTX시설을 포함한 증설등 京仁에너지의 지난번 준공까지에는 약 4,5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방향족 시설 사업허가는 상공부로부터 1989년 11월 27일 이며 착공후 2년여만에 준공됨)

한편 金昇淵그룹회장은 책임경영체제강화를 선언, 해외부문에 주력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成樂正회장은 1988년 1월 1일부터 京仁에너지의 대표이사 副會長을 맡아 왔다.



□發電事業

석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源의 하나인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京仁화력발전소는 京仁에너지가 1972년부터 현정유공장이 소재한 仁川栗島에서 계속해 온 사업이다.

석유연료로 생산한 전력을 바로 옆에 소재한 韓電의 인천화력발전소로 送電관매 하는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민간보유화력발전소로서 32만4,800kw의 용량이다.

□유탄유사업

각종산업이 폭넓게 발달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고급유탄유가 필요하다. 이에 京仁에너지는 고품질의 유탄유를 공급하기 위해 세계적 메이저인 英國의 BP(British Petroleum)사와 1988년 8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89년 12월부터 공급하였다.

즉 89년 12월 4일 1,000b/d규모의 유탄유공장을 仁川정유공장 부지내에 준공, 가동개시한 것이다.

현재 승용차·중장비등 차량용은 물론 각종산업 기계용과 선박용·항공기용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고급유탄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유탄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京仁에너지 전체사업규모의 약 2%를 점한다.

□석유개발사업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석유자원의 장기적·안정적인 供給源확보가 중요하며 또한 해외에서의 개발원유를 저렴하게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京仁에너지는 1985년이래 해외유전 개발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왔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와림광구 ▲알제리 육상광구 ▲濠洲티물갱 등 3개국 4개 광구 개발사업에 지분참여하고 있다. 올해의 개발투자는 60억원인데 하반기에 시추하는 알제리와 호주 티물갱이 비교적 유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정유회사로서는 油公 다음의 두번째로 자원개발팀을 조직하였으며, 전문화를 위해 仁川공장에 기술연구소를 설치(85. 8. 8), 또한 대덕연구단지에도 별도의 종합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LPG사업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하고 공해없는 연료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하여 종합에너지企業으로 발전하려는 京仁에너지가 최근 LPG사업에 진출키로 하였다. 가칭 「京仁가스(주)」로 금년내 7월경 설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1994년말 완공을 목표로 15만톤 규모의 LPG수입기지를 인천공장부지에 건설할 예정이라 한다. 京仁에너지의 자회사로서 LPG업계에 진출하는 이 사업은 수도권지역에 LPG수입기지를 마련한다는, 분산 필요성의 뜻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자회사는 100% 京仁에너지 出資로 설립되리라는 소문이 있다. 투자규모는 600억원 예상. ♣